

대속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복음으로 여는 마태복음-

창세기 22:17, 마태 복음 16:13-16

정윤돈 목사님

* **창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 **마16:13-16**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다라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절대불가능해 보였던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응답과 축복을 받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름을 당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헌신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미션 계획을 깨닫게 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많은 메시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레마를 발견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램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론

1. 마태복음의 배경과 유대인의 오해 오늘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 복음서의 일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약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표적인 잘못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유대인의 세 가지 영적 오류

1. 선민사상과 배타적 민족주의 첫째는 선민사상이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국수주의적 사고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강대국들의 패권주의로 나타나 세상을 전쟁과 멸망으로 몰아넣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 내가 죽고 희생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살리라는 것이었지,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 봉사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율법주의의 함정 둘째는 율법주의이다.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에 얽매어 이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명시한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며,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에 빠져 남을 정죄하게 된다.

3. 의식주의에 대한 권력 아부형 신앙 셋째는 바른 복음을 모르기에 세상 권력과 의식주에 매이는 태도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왕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위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문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의 돈과 생계문제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없다.

2. 후대 서밋운동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삼중직의 축복

(1) 웰트사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선교적 비전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여 이번에 램프들이 흥풍현장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한 선교사 자녀가 선생님이신다는 국제학교의 학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1년 학비인 줄 알았으나, 한 달 비용이라는 사실에 나는 새로운 언약을 붙잡았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1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후대를 이런 최고의 현장에 보내 서밋으로 키워야겠다는 기도를 하였다. 성도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귀한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풍요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난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는 이 가난의 흑암을 박살내야 한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내한 젊은 장로님은 금융과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다. 그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세 시간 동안 왜 그리스도인이 필요할지를 설명해 주었다. 사단이 장악하여 거짓과 배설, 탐욕으로 점철된 금융의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가진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다. 우리 후대들은 다니엘과 요셉처럼 세상의 주류 속으로 들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영력과 지력을 겸비해야 한다.

(2)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삼중직의 축복 예수님이 이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한 우리 또한 왕답게 누리며 살아야 한다. 현실적인 상황이 어려워 곤궁하게 살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만은 가난에 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비난하기보다

내가 대신 희생하고 풀어주는 것이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다. 동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잘못된 것은 바르게 가르쳐 줄 줄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명확히 일깨워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왕, 선지자, 제사장)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왕같이 누리고, 제사장처럼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성경에서 기름은 곧 향기를 상징한다.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어 향기와 빛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둠을 가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고 생명의 향기가 퍼져 나갈 때 현상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삼중직의 축복을 온전히 믿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1.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1)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마1:1-17)

1) 유대인의 오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유대인들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제사를 삼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망각한 채,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에 빠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영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며 시작한다. 한 불신자가 군대시절, 삶의 무게에 눌려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의 일이다. 실제로 그가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름만 나열되는 족보가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아는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에, 남의 아내를 취해 아들을 낳았다는 부끄러운 지부가 고스란히 적혀있는 것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자신도 세리 출신의 죄인이었다. 이 족보는 잘나고 의로운 가문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추악하고 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 역시 음란하고 죄를 지은 존재였음을 상기시키며 그렇기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다.

2)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창22:17)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한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이면계약은 당대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심지어 1,000년 후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수천 년 전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주실 응답을 신뢰하며 오늘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눈앞의 작은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미래를 향한 진정한 언약을 소유해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이 찾아온다.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3) 대적의 성문을 정복하는 왕의 권세 성경에서 말하는 '내 씨'는 단순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과 죽음, 죄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전쟁을 할 때 성문이 뚫리면 그 성 전체가 정복되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흑암 성문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다.

4) 기도의 유산과 후대의 응답 과거 한국의 유명만 영화배우였던 신영균 씨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배우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5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그의 외손녀는 최근 세계적인 무대에서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며 큰 상을 받았는데, 이는 기도의 부모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부린 기도의 씨앗이 후대에서 세계적인 오스카상과 같은 영광스러운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왕의 왕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이 정작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성문을 박살내고 차지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세상의 작은 풍파에 흔들리며 종교생활을 대충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응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응답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오늘을 설계해야 한다. 벤처 기업가들이 성공을 확신하며 험난한 고난의 터널을 건너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자라다 행복한 기대를 품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날마다 행복한 기대감이 넘치는 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한다.

(2) 족보에 담긴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선교의 메시지 예수님의 족보에는 단순한 혈통의 나열을 넘어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선교의 비밀이 담겨 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네 명의 여인, 즉 다말과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바세바)가 등장한다. 유대인의 율법과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진 여인들이었다. 다말은 사바사지와 근친상간을 한 여인이었으며, 라합은 기생이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라합은 단순히 술집 여자가 아니라 창녀였다. 룻은 유대인이 멸시하던 이방 여인이었고,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하여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인물들이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사람도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다말, 라합, 룻이 이방인의 혈통이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가 이미 다문화와 선교의 필요성, 다양성, 그리고 절대성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성령 잉태와 임마누엘 언약의 성취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 요셉과 마리아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완벽한 성취이다. 과거 한 장로님께서 "동생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더니 DNA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법적으로 완벽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다. 법적으로는 요셉의 가문에 입양된 양자의 형식을 취하셨고, 육적으로도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셨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며 이방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왕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의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았다. 우리는 이 역사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단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놓치면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실제 응답으로 붙잡아야 한다.

(4) 언약을 실천하는 믿음의 도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강단의 말씀을 단순히 "맞는 말이다"라고 동의하며 지나치게 안 된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램프들을 세계적인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 1억 원을 들여서라도 유학을 보내겠다는 목회자의 비전이 선포될 때,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기 마라. "하나님, 내가 그 사역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도전해야 한다. 최근 우리 교회의 한 의사 장로님은 후대를 키우기 위해 축조의 호환을 예약하여 청년들을 초청하고 포럼을 진행하셨다. 이것이 중직자가 돈을 써야 할 이유이며, 치유의 플랫폼이 되는 멋진 모습이다.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2.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

(1) 산상수훈과 복음의 본질(마5~7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적인 실천목표를 말씀해 준다. 이 산상수훈은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은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철저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등의 행위를 형식적으로만 수행했을 뿐,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런 겉면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화 사랑과 용서이다. 제사를 지내며 양과 소를 잡고 그 고기를 나누며 잔치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듯 그들을 위해 회생하며 피와 땀을 흘리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타인을 향한 회생에는 무관심했다.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따르면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형제간에 진심으로 화목한 경우를 찾지만 매우 어렵다. 성경은 형제를 결코 욕하고 미워하는 자는 지옥 불에 던져진다고 말한다. 이 기준 앞에 서면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즉, 의인은 없으며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형제나 가까운 이웃, 부부, 성도 간에 원수가 생기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할 현장을 원수관계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왕의 왕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저 종교생활에 머물게 된다.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내가 잘나서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주님께 면죄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준은 내 성적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내가 선택하여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창세기 3장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같다.

(2) 전적인 타락과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지킬 수 없는 기준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일깨우셨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요, 탐하는 자마다 도둑질한 것이다. 이처럼 산상수훈은 우리를 위로하는 좋은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선고하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평등 차에게야 의자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다. 내가 조금 의롭다고 생각하여 타인을 절제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제자를 키울 수 없다. 오직 완전한 복음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오로뵤를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다. 이것은 마음의 악을 이기는 말씀이다. 하지만 우리 영적 상태는 눈앞에 복속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주님은 우리를 심히 죄인 되게 만드셨으므로 진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신다. 루터와 칼빈이 강조한 '전적인 타락'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선 선을 행할 힘과 능력이 조금도 없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며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3) 성상위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거(마8~17장) 마태복음 8장부터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다. 자신이 천능하신 성상위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신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많은 이단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밖에 없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론과 직결된 핵심내용이다.

(4) 하나님 나라와 말세의 소망(마13, 24~25장)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는 누락없이 확산되며, 진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또한 24장과 25장에서는 말세의 상황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신다. 이는 지구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이를 실제로 믿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내 욕심이나 야망을 위한 삶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작은 헌신만이 하늘에 상급으로 쌓인다. 의식주를 위해 사는 삶은 하늘에 쌓이지 않는다.

(5) 지상대명령(마28장)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계복음화의 지상 명령을 주셨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237나자와 5,000종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3. 우리에게 주신 절대미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축복(마1:21, 23)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표적인 복음성구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미션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신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이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나 '예수'와 같은 의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이것이 복음의 핵심내용이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임을 증거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과거 서술역에서 자치를 기다리던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더니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히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가르쳐준다. 우리가 이를 깨닫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느냐며 성경을 '젊은 여자가 잉태한다는 식으로 잘못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산물이다. 유주만물이 무한하듯 하나님의 능력 또한 무한하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성상위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다.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구원이며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 오신 참된 왕의 왕이시다.

(2)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마16:13-20)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다. 당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개혁주의자), 엘리야(신비주의자), 예레미야(박애주의자)와 같은 종교지도자 중 한 명으로 오해했다. 물론 그 선지자들도 오직 메시야를 기다렸던 인물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수님은 사탄과 죄,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다. 또한 하

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삶의 이정표를 알려주시는 참된 선지자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막힌 경제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 등 모든 불가능한 길들이 열리게 된다. 우리의 힘으로 는 안 되지만 주님을 믿을 때 모든 막힌 답이 무너지는 대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3) 대속물로 오신 섬김의 왕(마20:28) 복음의 핵심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담겨 있다. 예수님은 다윗을 능가하는 참된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으셨다. 도리어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며 복음의 정수이다.

(4)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 마태복음을 통해 주신 첫 번째 미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도보다 의식주를 더 걱정하며 돈 문제에 매여 사는 것을 보시고 이에 대해 비교적 길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잡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의 작은 자들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아버지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다. 나의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나 역시 항상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고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비록 빚을 지고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렸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물을 주시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셔야 한다. 내 마음이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며 돈 걱정만 하고 있다면, 설령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응답이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즉, 내가 해야 할 공부를 하고 필요한 것은 준비해야 한다. 나의 어머니는 일이 막히고 안 풀릴 때마다 "그때가 공부하고 자격증을 딸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주보를 통해 평생교육자격증을 따라고 관련한 것이다.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가진 우리 밖에 없다. 집안에 박혀 일하지 않는 청년들을 누가 건져내겠는가? 복음 가진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사회복지를,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자격증을 갖추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니엘과 요셉도 정부 주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세상의 주류 자격증, 즉 국가자격증을 따서 이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장로님은 "10년 전에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격증을 딸 것"이라며 회개하면서 여전히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95세 할아버지도 새로이 언어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늦은 때란 없다. 과부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졌듯이, 하나님은 준비만 그릇만큼 채워주신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데 의식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하고 절대적인 준비를 하면 된다. 현재 쿠바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결과 6년째 비가 내리지 않고 전기와 음식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힘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주는 오늘날의 축복은 지난 과거부터 뿌려진 복음의 결과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는 '남은 자(Remnant)'가 필요하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시드라, 메사, 아벳느로,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가 바로 그 남은 자들이었다. 그 소수가 복의 근원이 되었을 때 나라와 민족이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5)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마5:48) 다음 미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삶의 절대목표이자 절대미션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산상수훈 말씀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도하며, 의에 주리고, 공허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다.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살 수 없다. 또한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으며, 6장 14절은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한다. 특히 7장 1절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대개 남을 비판하고 힐끔은 재미로 살기 쉬우나, 복음과 은혜 속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비판해야만 혈액순환이 되는 말할 체질로 살게 된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비판이 아니라 진제를 살리고 보호하는 생명 살리는 체질이 각인되어야 한다. 또한 7장 12절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이러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에 포함된다.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원수도 사랑하고 비판을 멈추며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조금씩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절대목표이자 미션이다.

(6)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28:19-20) 마지막 미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세계복음화의 절대미션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는 현장화를, '모든 민족은 세계화를, '제자로 삼아'는 제자화를, '세례를 베풀고'는 교회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성화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절대불가능한 부분도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란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장의 시간표가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평생 넘어지고 성장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히 중간사역자로 성장하여 다른 사람을 끝까지 이끌어 주는 영적인 선생님들이 되어야 한다.

결론

참된 대속과 구원의 왕이시며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성도와 후대 랩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응답받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에게 왕의 왕되신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